

起岩 李中業論*

이택동**

<차 례>

1. 머리말
2. 起岩의 삶과 의식의 대강
3. ‘當世’에의 실천적 대응
4. ‘吾道’에의 強固한 遵信
5. 마무리

<국문초록>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에 말미암아 우리의 최근세사는 파행과 굴절로 일관되었다. 그러므로 근세기 지성사와 문학사를 검토할 때 반일과 반제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이나 작품에 주목하여 그 의의를 점검하여 왔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지성은, 최근세기에도 여전히 그 공능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당대 지성사나 문학사를 재구할 때, 당대 상황에 대해 가열찬 응전을 보이는 작품군에만 관심을 할애하는 것은 당대의 실상을 온전히 복원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특히 기암 이중업을 대상으로 하여 당대 지성인이 내면화하였던 전통적인 자장과 작금의 현실에 대한 응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각 속에 당대 지성인에 대한 탐사가 축적된다면 우리 신문학사의 왜소성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전근대와 근대의 갈미들에 대한 보다 유장한 시야에서의 관점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이중업, 장석영, 전통적 지성, 반제국주의, 20세기

* 본 연구는 2005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起岩 李中業(1863-1921)의 詩文을 검토하며 근세기 영남 儒林의 당대에 대한 대응과 사유의 대강을 점검하려 한다. 起岩은 退溪의 후손으로 家親은 경술국치를 당해 絶食殉國한 響山 李晚燾이며 그 자신도 일평생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한 인물이다. 起岩의 한 평생은 李錫井이 誄文에서 간명하게 짐은 대로 ‘淸直한 氣節’과 ‘蓄積된 鬱憤’으로¹⁾ 요약된다 하겠다. 청직한 기상이 있었기에 구한말의 혼란기와 일제 식민 치하에서 온 몸을 던진 항거가 가능하였을 것이며, 그러한 항거에도 자신이 희구하는 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기에 울분으로 양양한 삶을 살아간 것이다. 이때 청직한 기절이란 전통적인 유자로서의 소양이 내면화된 것은 물론이다.

起岩에 대해서 지역 유도회나 문중 차원에서의 顯揚 事業은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 한편 안동 지역의 독립 운동사에 비중있게 소개되고 있는데, ‘파리장서에 이은 유림계의 활동에 안동에서는 이중업의 부자가 맹렬한 활약을 보인 것이다. 이로써 이중업 가문은 부친 이만도 이래 삼대에 걸친 독립운동의 찬란한 빛을 받았다. 이만도의 의병항쟁과 단식순국에 이어, 숙부 이만규의 단식순국, 이중업 부인(만주독립운동을 벌인 김대락의 누이)의 삼일운동에 대한 일본 경찰의 고문과 이에 따른 실명, 이중업 자신의 파리장서 활동과 2차 독립 청원 시도, 그리고 두 아들 동흙과 종흙의 경북유림단의거가 그것이었다’²⁾와 같은 평가에서 보이듯이 독립운동

1) 청량산이여, 가파르게 솟아 옥처럼 쭈뼛함은, 公의 直氣 와淸節 이 아니겠는가 낙동강이여 질펀히 흐르다 바위쪽에 부딪침은 公의 울분이 쌓인 것이 아니겠는가(淸涼之山兮, 崢嶸而玉立, 匪公之直氣淸節耶, 洛江之水分, 激流而石觸, 匪公之蓄積鬱耶). 李錫井, 誄文.(李中業, 『起岩遺稿』, 여강출판사, 1986. 572면.)

2) 김희곤, 『안동의 독립운동사』, 안동시, 1999. 311면

에 투신한 起岩의 삶에 대한 칭예를 보이고 있다. 또한 起岩의 世居地인 下溪 마을을 집중적으로 고구하며 그 속에서 起岩의 절의와 의병활동을 소개하는 논고도 제출되었다.³⁾ 그럼에도 아직 起岩을 중심에 둔 본격적인 고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起岩은 한편으로 구국운동에 매진하며 다른 한편으로 학맥과 학통의 정통성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기도 한 바,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인 양상을 검토하며 그 의미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사후 후손들에 의해 수습되어 家藏되어 온 원고가 校正을 거치지 않고 영인되어 1986년 여강 출판사에서 간행된 『起岩遺稿』가 주된 검토 대상이다.

起岩 개인에 대한 천착에 앞서, 근세기 지성계에 대한 학계 일반의 시각이 辨整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이 시기 지성인에 대한 자리매김이나 응분의 의미부여가 아직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기에 우선 이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이다. 근세기에 상재된 문집을 훑어보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연구자가 예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해당 인물은, 백척간두에 선 국운이 염려스러운 바로 그만큼 스러진 왕조와 국권을 애달파하는 바로 그만큼 혹은 신지식의 흡수로 문명자강을 염원하는 회구의 숲에 조금도 함량이 미달하지 않게, 문중의 世系를 정리하는 일이나 學恩을 입은 宿儒의 문집을 제대로 편찬해 내는 일, 그리고 理氣論辨이나 湖洛論爭 혹은 屏虎是非에서 자신의 주장을 뚜렷이 하는 데에도 혼신의 힘을 바치고 있다.

심지어 진보적인 의식으로 무장된 것으로 평가받아 온 인물이나 반봉건적인 의식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 이들의 경우에도, 실제 그들의 문집 속에서는 전통적인 자장이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필자로서는 이

3)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터를 안고 仁을 펴다 - 退溪가 굽어보는 하계마을』, 예문서원, 2005.

러한 대목을 전통소의 잔존물로만 평가하며 매도해서는 도저히 당대의 실상을 온전히 재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근세기 지성인에게 보이는 저와 같은 '전통소'도 그들로서는 '당대 현실'에 대한 치열한 대응이었겠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단계 연구사에서는 저와 같이 신과 구가 혼효된 당대의 중층성을 함께 아우르며 해명할 수 있는 이해의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역사의 전개는 일순간의 전면적인 改變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거시적인 과정을 경과하는 것이며 그러한 新舊의 거시적인 이행에서 新舊의 混淆는 차라리 당연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지나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입장에 서서 新舊의 錯綜 속에 '新' 쪽으로의 경사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舊' 쪽으로의 경사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읽어 내리면 애당초 곤혹스러움이 생겨날 리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손쉬운 해법으로는 당대 지성의 온축 중 많은 부분을 놓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근대'와 '근대'가 엇갈리는 당대에 대한 관점과 시각이 근본적인 층위에서 變轉되어야 당대의 실상이 온전히 복원될 수 있으리라는 잠정적인 이해에 이르게 되었으니 상론하자면 다음과 같다.

新舊의 混淆를 보이고 있는 당대 현실의 정확한 실상은 신구의 교체라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적어도 당대까지는 현재적 유효성을 여전히 확보하고 있는 '舊'에 대한 '新'의 축적이었다. 18세기 이후 전방위적으로 우리 사회를 질식케 한 西勢東漸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반성적이고 차별하게 그 의미를 검토하기에는 너무나 압도적인 충격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당대인은 물론이려니와 한두 세기 이상을 경과한 오늘에도 그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 학계의 반응 역시 냉철한 분석보다는 뜨거운 감성으로 경도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때 '새로움'에 대한 반응은 거부와 지향이란 양가적인 양태를 보여주었지만 전통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부정과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였기에 서구로부터의 충격 이전과 이후는 가위 단층적인 심연이 가로놓여 있는 것으로 우리 지성사는 인식해 왔으며, 어김없이 '新生'한 문물에는 긍정적인 징표를 '在來'의 모든 것에는 부정적인 징표를 부여해 온 것이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한 두 세기를 경과하여 왔다. 그렇지만 그 한 두 세기 동안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사회 전반에 걸친 서구 추수적인 학습으로 어느 정도 서구에 필적하는 역량을 확보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필자로서는 바로 이즈음이라면 무비판적인 서구예로의 경사에서 벗어나 반성적인 시각을 확보할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렇게 마련된 반성적인 시각으로 풍성한 연구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전통적인 사유를 내면화하고 급변하는 현실에 대응했던 근세 지성에 대해서가 아닌가 한다. 앞서 이야기하자면 虎論을 주창하는 '起岩'을 소거한다면 그리고 人物性同異論에 대해 탐사하는 晦堂을 배제한다면, 起岩이나 晦堂에 대한 논의는 공소함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起岩과 晦堂들이 한 축을 담당한 개화 공간에 대한 논의도 피상성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본고는 적시한 바와 같은 문제 의식 아래 근세기 지성인의 삶과 사유를 살피려는 장기적인 기획 속의 한 각론이라 할 수 있겠다.

2. 起岩의 삶과 의식의 대강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起岩 李中業은 근세기 영남 유림으로 일평생 항일에 투신한 삶을 살아간 인물이다. 따라서 독립운동을 정리하는 작업들에서는 간헐적으로 起岩의 항일운동에서의 역할과 의식 세계 등이 검

토되어 왔다. 그렇지만 독립운동사 전체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한두 단락 정도의 분량이 할애되었기에 起岩의 삶과 의식 세계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자리에서는 우선 起岩의 생평과 의식의 대강에 대해 개괄토록 한다. 제시된 글은 晦堂 張錫英에 의해 쓰인 起岩의 묘지명의 한 대목으로 근세기 지식인이 살아간 삶의 한 궤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 판단되기에 다소 장황하지만 살펴보도록 한다.

上皇이 붕어함에 이르러 온 나라가 駭然 한데, 巴洋에 보내는 장서를 써서, 이를 통해 복수할 기회를 기대하였다. 그 즈음에 정성을 다하여 주선하였으니 죽장망해로 짐을 싸 등에 지고 길 위에서 방랑한 바, 근심하는 모양이 귀의할 바 없는 곤궁한 사람과 같았다. 그 뜻은 대개 다음과 같다 이를 수 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으면 자식이라 할 수 없고 임금의 원수를 갚지 않는다면 臣子라 할 수 없다. 집안의 편안함은 내 뜻이 아니요, 처자를 부양함도 내 즐거움이 아니며, 감미로운 服食도 내 바라는 바 아니다. 광대나 거지처럼 천하게 사는 것이나 죽어 새나 벌레의 먹이가 되는 것도 내 근심이 아니다. 오직 海上의 천만인이 집을 잃고 굶어 죽고 시려 죽는 것이 내 근심이며 굴원처럼 세상을 구하지 못하고 이 세상 앞 날을 보지 못함이 내 한하는 바이다.⁴⁾

晦堂 張錫英은 적시된 바와 같이 起岩의 평생 이력 중 파리지장서를 주도한 대목을 가장 의미깊은 것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과연 起岩은

4) 及上皇崩, 舉國駭然, 簡書通於巴洋, 因此而尙冀有復讐之機, 竭盡心力, 周旋其間, 竹杖芒鞋, 背負包裹, 棲遑道路, 恤恤若窮人之無所歸, 其志蓋謂, 父讐未復不成爲子, 君讐未雪, 不成爲臣, 室家之安, 非吾志也, 妻子之養, 非吾樂也, 甘食美服, 非吾願也, 生而爲倡丐之賤, 死而爲烏鳶螻蟻之食, 非吾憂也, 唯海上千萬人靡室家而凍餒死, 是吾憂也, 屈平不能度世不見此世之出場, 是吾恨也(李中業 앞의 책, 572면. 張錫英, 『晦堂先生文集六』, 한국역대문집총서 809, 경인문화사 1994, 380-381면.)

晦堂의 요약대로 한평생을 항일을 위한 투신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단 파리지서를 주도한 대목만이 아니라 晦堂은 임오년에 나라가 혼란해지자 약관임에도 불구하고 거업을 포기한 점, 갑오년에 동학란이 있고 을미년에 국모가 시해당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격문을 써 의병을 일으키고 여론을 고취한 점 등도 대표적인 이력의 한 국면으로 평가하고 있다.⁵⁾

제시된 대목 중 ‘아버의 원수를 갚지 않으면 자식이라 할 수 없고 임금의 원수를 갚지 않는다면 신자라 할 수 없다’는 언급은 지사적 삶을 살아간 인물의 관례적인 심사가 아니니 보다 육중한 울림을 지니는데 起岩家の 내력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선인인 향산 이만도 선생이 경술국치를 당하여 절식순국한 이력은 모두에서도 적었던 바, 선친의 憤死 이후 선인을 뒤이어 죽어야 마땅하나 자신이 죽으면 遺文을 정리할 수 없고 墓表를 세울 수 없다 하여 몇 년간 이 일에 전념하였다. 그런데 日警들이 묘표를 없애고 쪼개기까지 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저간의 사정이 이러하였으니 아버의 원수라는 언급에는 起岩의 사무치는 회한과 분노가 투영되어 있다 하겠다. 이러한 회한과 분노는, 후대에 칭예되는 대로, 일제에 대한 실천적인 항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起岩의 삶에는 반일의 선두에 자리한 실천적인 지식인이라는 규정만으로는 포섭될 수 없는 면모도 아울러 존재하니 당대 영남 유림의 宗匠이었다는 위상이 바로 그것이다. ‘군으로 하여금 수를 더 누리면서 학문에 전념하게 하였다면 유학의 정맥을 지켜내고 스승들의 가르침을 이어가며 우뚝 솟은 儒門의 宗主가 될 이가 군이 아니면 그 누구이라(使君而享有長年, 益篤問學之工, 則所以扶持正脈, 承紹師傅, 卓然爲儒門宗主者, 舍君而其誰也)’⁶⁾라고 한 행장의 요약대로, 항일 운동의 선두에 선 지

5) 雖然自壬午國變, 甫弱冠而廢學業, 甲午值東賊之亂, 乙未遭弑母剃髮之變, 密檄倡義鼓發衆心.(張錫英, 「묘지명」, 이기암, 앞의 책, 573면.)

사적인 면모와 함께 退溪의 후손으로 당대 영남 유림의 핵심에 자리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에 일평생 『心經』과 『近思錄』 그리고 『退溪全書』를 존신하며 완성을 보지는 못했지만 『퇴계집』 중에서 『大學』의 조목을 언급한 내용들을 취합하여 『大學精義』를 엮으려 하였으며 『주자대전』과 『도산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묶어 『兩全合選』을 간행하려 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삶의 양식과 학문을 견결히 고수하고 있었다. '新學이 성하게 일어나자 선비들도 추창하며 풍조가 일반하였는데 군은 이에 대해 개탄하며 대소가와 의논하고 어린 아이들을 불러 모아 날마다 『小學』을 가르치며 향음과 향약의 의례를 이어가며 古道가 이어지기를 희망했다(及新學熾, 而士趨一變, 君慨然, 與門族議, 聚後生小子, 日授以小學, 繼行鄉飲鄉約之儀, 冀有以扶豎古道焉)'⁶⁾는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통적인 사유와 소양을 철저히 묵수한 인물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기실 당대에 대한 지식인들의 대응 양태는 양 극단으로 뚜렷이 구획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변화하는 시류에 편승하여 신문화나 신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그 하나이며, 급변하는 시류에도 불구하고 의구히 옛 것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또 다른 경향성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新學이 성하게 되었으며 당대 士類 들도 新學 이나 신문물에의 경사를 보이던 즈음에 起岩은 대소가의 아동들에게 『小學』을 講하고 鄉飲酒禮와 鄉約의 의례를 존신하며 古道 가 당대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지침임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起岩의 의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기실 起岩의 저러한 대현실안은 약관 전후에 제출된 아래 시편에 피력된 인식에

6) 『기암유고』, 578면.

7) 『기암유고』, 577면.

서 이미 마련되고 있었으며 평생을 통해 지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고도가 바로 금도이며, 성인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배워서 天德에 이르고자 한다면, 마땅히 고요함을 좇아 찾아야 하리.

(古道即今道, 聖心便我心. 如學達天德, 當從靜裡尋.)⁸⁾

일본의 제국주의적 병탄에 대해 온 몸을 던져 응전한 起岩이,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사유와 실천에 대해 어떤 주저나 망설임 없이 존신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를 두고 현대계 우리 학계에서는 전자의 起岩을 두고는 간헐적이었지만 칭예를 보이는 반면 후자의 起岩을 두고는 별다른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起岩은 항일지사이며 동시에 영남 유림의 종장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두 면모를 동시에 존중하며 검토하지 않는다면 起岩에 대한 이해는 파편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⁹⁾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起岩의 문집을 통해 확인되는 당대에 대한 인식의 대강을 양 갈래로 나누어 살펴 보며 소슬하게 떨실되어간, 전통적 사유로 무장한 근세기 지성인의 당대적 위상에 대한 보다 온당하며 활발한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3. ‘當世’에의 실천적 대응

起岩의 문집에 시작품이 많이 수습되어 있지는 않다. 200면에 미치지

8) <讀書有感>, 李中業 앞의 책 3면

9) 거듭 지적하듯, 이러한 문제는 비단 起岩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근세 지성인에게 두루 해당되는 사안인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기에 당대 지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 연구사적인 변전이 요구된다 하겠다.

못하는데 일실된 시편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아 있는 작품을 통해 시풍을 짐작할 때 평소에도 시짓기를 즐겨하지는 않은 듯하다. 꼭 써야 할 대목에서만 평담하고 진솔한 작품을 남기고 있다. 작품들의 대체적인 경계 역시 전통적인 유자나 사대부의 그것과 별다른 편차를 보여주지 않는다. 居敬窮理를 기약하는 내면의 권면이나 溪邊山水를 마주하며 피어나는 서정적인 단상 그리고 交友와의 증별을 노래하는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起岩은 그 생애가 파란으로 굴곡진 근세기에 걸쳐 있으므로 아무래도 당대 사회에 대한 관심이 피력된 작품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을 듯하다. 이에 창작 연대를 재구할 수 있고, 행장에 요약된 이력과 결부하여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의미망을 검토하는 것이 논의의 집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西征諸作>으로 묶인 一群의 시편들을 주된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데, 1896년 起岩의 나이 서른 셋에 경성을 다녀오며 여로에서 피어오른 단상을 형상화한 작품들이다.

이 즈음의 조선은 그야말로 누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西征 두 해 전에는 동학농민운동을 빌미로 주둔하게 된 청일 양국의 교전 끝에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여 갑오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민비를 시해한 을미사변은 西征 바로 전해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러한 전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起岩이 당대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행장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이 쓰여진 시기의 조선이 특히 문제적인 형국에 처해 있었으며, 그러한 정세에 대한 起岩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작품을 통해 문제적인 국면에 대한 입장을 토로하고 있기에 당대 상황에 대한 起岩의 인식을 살피기에 유리한 시편이라 하겠다. 우선 갑오경장과 을미사변이 일어난 1894년과 1895년에 起岩의 즉적

을 행장을 통해 살핀다.

甲午年에 南賊 들이 궁궐을 침범하여 재앙의 조짐이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에 주상이 近臣인 李容鎬를 은밀하게 三南에 보내 士民들에게 倡義하여 入援 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용호는 군명을 받들어 영남으로 넘어와서는 가장 먼저 향산을 찾았다. 향산은 교지를 받들고 통곡하고 宗族과 鄉人들과 도모하기를, 東學徒 들을 막는다 청탁하고(그 즈음에 동학이라 불리는 無賴輩들이 있었는데 촌 마을들을 노략질하였다) 試士壇에 모여 논의를 하였다. 오래지 않아 이용호가 체포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궁궐에까지 미칠까 두려워하여 중단하였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의 대응은 군이 좌지우지 하였다.¹⁰⁾

고종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액난을 당해 在地 儒林들에게 倡義入援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대적 정황에서 그 의미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방증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절체 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국왕의 勸誘에, 起岩이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종족과 향인을 규합하여 거병하려고 하였던 사실은 유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용호가 체포되자 왕실에 화가 미칠까 저어하여 결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갑오년의 급변하는 정국 속에 고종과 영남 사람의 내응으로 倡義舉兵이 기획되었으며 그 과정에 起岩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듬 해인 1895년에는 전국적인 의병 운동을 촉발시킨 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난다. 賊臣들은 일본 군대를 끼고 국모를 시해하고 고종을 협박하

10) 甲午南賊犯闕, 禍機叵測, 上密遣近臣李容鎬於三南, 勸諭士民倡義入援. 李奉君命踰嶺首訪先公, 先公奉旨痛哭, 謀于宗族鄉人, 托以備禦東學(時有無賴輩, 名以東學寇掠村閭), 會議于試士壇. 俄聞李被執, 恐禍及宮闈而止. 然其臨機措畫, 君實左右之也.(李中業, 앞의 책, 574-575면.)

여 廢黜하려 하였으며 심지어 초상이 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다. 이에 공은 적신들을 토벌하고자 檄文을 써 원근에 뿌려 민심을 격발케 한 바,¹¹⁾ 한 부분만 보면 “무릇 우리 이씨의 신하 백성된 자는, 진실로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먹이며, 몸을 잊어버리고 나라 위해 죽어, 이미 떨어진 강산을 붙들고, 망하여 가는 사직을 보존하여야 될 것이어늘, 어찌하여 팔도의 넓고 큼으로도, 일찍이 한 사람도 분기함이 없는고.¹²⁾”라고 하여 접하는 이로 하여금 의분이 끊어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起岩이 경성으로 간 즈음에는 국가도 백척간두의 액난을 겪고 있으며 起岩 자신은 다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당대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응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경성행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 역시 時事 때문이었다. 정부에서는 起岩의 숙부인 柳川公을 禮安郡守로 제수하였는데 이는 敵黨들이 公議를 빌어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유천공이 응하지 않자 적당들은 병사들을 보내어 위협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공이 사의를 표하기 위하여 상경하였던 것이다.¹³⁾

이러한 정황에서 쓰인 시편이기에 작품을 접하기 전에 이미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적신들에 대한 울분, 그리고 기울어가는 국운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가득 하였을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작품을 한 수씩 들며 그러한 내심이 발현되는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첫 작품은 개인적인 회한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십오년 전에 이 길을

11) 乙未賊臣等挾讐兵，弑國母脅上降廢黜，傳旨不發喪，君不勝憤痛，貽書諸同志，又要金義士道鉉，密議討復之計，而草莽白面，無能爲冒死直前者，君密草檄文投付遠地，使轉通於本郡，冀有以激勵衆心焉。(위의 책 575면)

12) 凡爲我李氏臣子者，固當沫血飲泣，忘身殉國，以扶已墜之三綱，以安垂亡之宗社，奈何八域之廣大，曾無一人之奮起。(「唐橋檄文」, 위의 책, 24면.)

13) 丙申六月，朝廷以柳川公爲禮安郡守，乃敵黨假公議以嘗試之也。柳川公秉義不應，賊至遣兵脅喝，君爲呈辭赴京。(위의 책, 573면.)

걸었고, 십오년 후에 이 길을 걷는다. 다녔던 이 길을 걷는데 험난함 끝이 없는 것은, 後行이 前行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네 (十五年前此路行, 十五年後此路行. 路行此路險無盡, 所以後行異前行)¹⁴⁾란 시구인데 평이하게 결구된 듯 하지만 곡진한 심사가 투영된 작품이니, 임오년 유월 이후 廢業한 뒤 西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을 쓴다고 自註를 달고 있는 것이다. 時勢가 달라져 과업을 등졌지만 그에 따르는 심리적인 韻韻이 없을 수 없었을 것인 바, 말구에서 이러한 정회가 스치듯 토로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 사회의 선비라면 어떤 경우에도 출사에의 회구가 없을 수 없겠다. 특히나 起岩의 경우 선인인 響山 이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며 그 자신도 ‘이 아이가 반드시 선조의 뜻과 사업을 계승할 것이라는 (此子必能繼父祖志事者)’¹⁵⁾ 기대 속에서 과업에 정진하고 있기도 하였던 바이다. 그런데 壬午六月의 大變을 당해 天綱解墜하자 進取하려는 뜻을 버리고 讀書求道에 전념하고자¹⁶⁾ 마음을 다잡은 바, 그럼에도 외적인 여건에 말미암아 좌절된 청운의 꿈에 대한 일말의 회한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처럼 개인적인 회한을 토로하며 시작된 시편은 서울로 향해가면 갈수록 당대 사회에 대한 인식을 토로하는 쪽으로 그 시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어지는 작품은 나루에서 왜인을 조우하며 피어오른 적개심을 읊은 <到荷淵津倭已入船自退不登賦古風一絕十五日宿梨花驛>이다. 앞서 살폈듯이 두 해를 거듭하여 일인에 의한 만행을 목도하였으며 국모 시해 이

14) <暮過治麻遷忠州十四日宿造斗院>, 위의 책, 9면.

15) 위의 책, 574면.

16) 逮壬午六月, 國有大變, 天綱解墜, 君遂絕意進取, 專以讀書求道爲心.(위의 책, 574면.)

후에는 격문을 써 거병까지 한 起峯으로서는 왜인과 함께 배를 타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 하겠다. 이에 ‘함께 하늘을 지지 못할 원수인데, 어찌 차마 함께 배를 타고 건널 수 있겠는가. 이 강물을 끌어담아, 천고의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싶구나(不共戴天讐, 何忍濟同舟. 欲挽此江水, 洗却萬古羞)’¹⁷⁾라고 노래하고 있는 바, 일인에 대한 반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가슴에 품은 정감을 날 것 그대로 直敘하는 경우에는 그 울림의 폭이 축소되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이 작품의 경우에도 그러한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도 보인다. 그런데 이어지는 작품을 통해서는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선조의 이력이나 전대의 사적과 포개어 보다 곡진하며 유장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먼저 살필 시편은 <申砮將軍의 묘를 지나며>란 작품이다.

兵家에 기발한 책략으로는 背水의 진이 최고지만,

한 번 이기고 한번 짐은 하늘에 달렸다네.

험준한 지형에 의거하지는 유자의 지략을 만약 따랐다면,

앓은 채로 兵仙보다 뛰어난 공훈 거머쥐었을 텐데.

(奇法兵家取背水, 一成一敗在於天. 據險若從儒者計, 坐收偉績勝兵仙.(壬辰, 先祖東岩公, 聞變勤王, 過忠州, 時申帥陣于彈琴台, 先祖請陣于烏嶺, 爲防禦之策, 帥不從, 竟見敗故云.))¹⁸⁾

細註를 보면, 임진왜란 때 先祖인 東巖公이 변란 소식을 듣고 진력을 다하는데 충주를 지나는 중에 마침 신립장군이 탄금대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先祖가 조령에 진을 쳐 방어의 계책으로 삼으라고 하였

17) 위의 책, 9면-10면

18) <過申摠兵墓廣州>, 위의 책, 10면.

으나 장군이 따르지 않아 마침내 패전을 당했기에 해당 시편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일견하면 여로에서 조우한 조상의 이력을 현양하고 있는 작품인 것으로도 읽히지만, 물론 그러한 의도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작품의 강음부호는 왜적에게 침탈당하고 있는 오늘의 정황을, 酷似한 과거의 정황과 겹쳐 보다 유장하게 드러내려는 데에 있다. 그 점은 이어지는 작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십오년전 이곳을 지나던 날에는, 다만 한탄할 줄만 알았지, 슬픔 깊지는 않았다네 (十五年前此過日, 徒知興歎未深悲)'¹⁹⁾라고 읊고 있기 때문이다.

곧 선조인 동암공을 현양하려는 것이 주된 작의라면 15년 전의 감회나 작금의 감회가 다를 까닭이 없겠다. 그런데 15년 전에는 敗績한 자취를 보며 탄식만 일어났는데 지금은 '深愁'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흥망이 갈마드는 유적을 목도하며 일어나는 탄식은 어떤 면에서는 누구에게나 촉발되기 마련인 자동화된 반응이기 쉽다. 그에 비해 '深愁'는 보다 예각화된 반응 양태인 바, 이는 15년 전에 비해 왜적의 발호가 자심해졌기에, 바로 그 왜적에 패망 당한 현장을 목도하는 起岩의 심사가 보다 애절해진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15년 전에 이 유적을 목도할 때에는 입신의 꿈을 품고 경성으로 향하던 신진기예였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촉발될 감회 이상이 유적을 보며 피어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장년을 넘긴 작금에는 遺蹟의 가해자가 여구히 社稷을 옥죄며 자신의 삶마저 굴절시키고 있으니, 막을 수 있는 환난을 막지 못한 탄금대의 고사를 통해 오늘의 상황이 환기되면서 애상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작품은 자신들의 '討復之計'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좌절한 이태 전과 작년의 의병활동을 삼천의사의 冤死와 견주며 촉발된 悲感을 형상화하고 있으니 起岩의 내면을 보다 꺾진하게 드러내고 있다.

19) <暮向雙嶺路上小憩>, 위의 책, 10면.

세상에서 삼천의사를 원통하다 일컫는데,
의롭게 죽었음이 원통한 것이 아니라 일 그르친 점이 원통하다네.
일 실패한 점 비록 원통하나 몸 치욕스럽지는 않았으니,
남쪽 선비들 구차히 살아가는 원통함과 같으리오.
(三千義士世稱冤, 死義非冤敗績冤. 敗績雖冤身不辱, 如今南士苟生冤.)²⁰⁾

첫 구에서는 삼천의사를 두고 환기되는 일반적인 정감을 적고 있다.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삼천의사를 두고 冤死하였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의롭게 죽었다는 사실은 원통한 일이 아니며 하고자 했던 일을 성공하지 못한 점이 원통하였으리라는 두 번째 구 역시, 삼천의사의 이력을 전통적인 대의명분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정 가능한 추론일 것이다. 그런데 敗績하여 원통하지만 몸은 치욕스럽지 않았다고 하는 세 번째 구에 투영된 인식은 의병활동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얻지 못한, 곧 당대적 정황에 실천적으로 투신하였으나 흡족한 성과는 일구어 내지 못한 자신의 뼈저린 체험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착상되기 어려운 인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탄에 빠진 국가와 군왕을 위해 有爲로운 일을 해내지 못한 혹은 비록 시도는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자신들의 처지를 ‘구차히 살아야 하는 원통함’으로 표현하며 자신들이 쓰러져 백골이 된 삼천의사보다 못하다 여기는 것이다. 국난을 해결하는 공훈을 세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徒食한다고 자책하는 회한이 감지되는 작품이라 하겠다.

한편 작품에 토로되는 ‘苟生 의식’은 당대 전통적인 지성인의 사유를 검토할 때 주목되어 논의되어야 할 대목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단 起巖뿐만 아니라 晦堂 張錫英의 시문에서도 이러한 의식이 토로되고 있는 바, 백척간두에 선 국난을 조우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황을 타개하려 하

20) <雙嶺>, 위의 책, 10면

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지켜보는 인물들이 지니는 현실 인식이 드러나 있기에 그러하다. 함께 읽는 작품은 晦堂이 郭鳴遠의 옥중시를 차운하여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작품이다.

報國 하려는 초심은 죽기로 함께 기약하였는데,
 죽어 편안함이 오히려 구차히 살아가는 그름보다는 낫다네.
 내가 죽고 그대 사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 보탬되건만,
 지금 그대 먼저 죽으니 슬픔에 잠길 뿐이라네.
 (報國初心死與期, 死安猶勝苟生非. 我死君生猶補世, 今君先死正堪唏.)²¹⁾

起岩과 동일하게 '苟生'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음울한 슬회가 개진되어 있는 것이다. 당대의 난제를 타개해 내지 못하고 시대의 격랑을 되돌리지 못한 전통적 지성으로 무장한 인물들의 심사를 역력히 확인할 수 있는 바, 전통적 지성의 당대에 대한 인식의 한 측면을 증언하는 대목인 것으로 판단된다. 암울한 당대 현실에 대해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전통적인 지성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苟生'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대 상황과 조우하고 있는 자신의 정황을 '苟生'이라고 인식한다고 하여 이를 단순화하여 당대 현실에 대한 소극적인 회한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苟生'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실천적인 활동에 투신하기도 하며 절식순국에 이르기도 하는 등 대처 방식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아무튼 당대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에 대한 한 진단으로서 제출된 '苟生'이라는 인식은 당대 지성인들의 의식을 해명하는 핵심적인 단서일 것으로 판단된다.

21) <次郭鳴遠獄中韻四絕>, 張錫英, 『晦堂先生文集卷之二』, 경인문화사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1994, 326면.

起岩의 작품으로 돌아오면, 여정을 계속하며 당대에 대한 근심과 우국의 심사는 이어진다. 정조가 남한산성을 다녀가며 어가가 머물렀던 돌을 보면서도, ‘다만 소원은 나라가 이 돌과 같아서, 천지처럼 장구하여 기울어 넘어지지 않았으면(但願 邦家同此石, 天長地久不轉傾)’²²⁾과 같은 희구의 념을 드러내고 청나라와 등진 후에 삼전도의 碑가 파묻히고 閣이 훼손된 것을 보고도 ‘행인들이 지금이 통쾌하다 말하지 말라, 서 있으나 얻어져 있으나 다름없이 슬프나니(行人莫道今時快, 其立其顛同一悲)’²³⁾라고 하여 청나라의 영향을 벗어 나지만 일본의 속박 아래 전혀 달라지지 않은 당대를 寓意하고 있기도 하다. 아래 작품들은 도성에 들어와 쓴 <入城>이란 제하의 동제각수이다.

왕업의 근원 심원한데 제업이 이루어졌으니,

우리 동방 교화됨이 정히 빛나도다.

편벽한 곳에서 나고 사람을 한하였더니,

지금 조정의 장관은 곧 皇京이라네.

(王業根深帝業成, 吾東治化正休明. 生長 徧邦曾自恨, 今朝壯觀乃皇京.)²⁴⁾

일견하면 경성에 입성하고 쓴 작품은 그 정조가 완전히 바뀐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작품을 축자적으로 읽고 당대적 정황에 어두운 頑味하고 시대착오적인 유생을 떠올린다면 적절한 독법이라 할 수 없다. 起岩이 입성하여 해당 작품을 쓴 시기는 1896년 6월이다. 그런데 이 때는 1894년 중국의 연호를 폐지하고 開國紀年을 사용하여 建陽이란 연호를 쓴 조

22) <南漢山城東門外 駐蹕石. 正宗己亥東巡時>, 李中業, 앞의 책, 10면.

23) <曾聞背清後, 拔三田碑, 大風忽起, 拔屋晝晦, 故 愼而止之. 今見果毀閣埋碑>. 위의 책, 11면

24) 위의 책, 11면

음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는 일본의 반대와 俄館播遷으로 금방 중단된, 파행적인 정국의 산물인 것이다. 더욱이 개화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재지 유생으로서 이러한 시도에 대해 불만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작품의 정조는 왕도를 읊으며 드러내는 의례적인 稱譽로 보는 것이 온당한 해석으로 보인다. 과연 이어지는 작품을 통해서도 당대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피력되고 있다.

문무로 다져진 옛 강역 아직도 있는데,
 춘추대의는 어찌하여 가라앉고 어두워졌는가.
 평생토록 강철지변을 애통해 하였더니,
 무슨 뜻으로 제 몸을 오랑캐 되려 하는가.

(文武舊疆尙自在, 春秋大義奈沈盲. 平生每憫靖康事, 那意身爲左 衽民.)²⁵⁾

北宋의 靖康 2년에 金軍이 남하하여 宋都 汴京이 함락되고 欽宗 등이 잡혀 끌려간 靖康之變을 작품 내부로 들여와 오늘을 우의하고 있으니 작금의 상황이 북송과 남송의 교체기에 빚어진 혼란과 전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하는 시편이다. 이적인 여진에게 송이 겪은 고초를 작금에 우리나라가 치르고 있다고 관념하고 있으니 당대 현실에 대한 전통적인 유림으로서의 진단인 셈이다.

이러한 인식들은 역시 晦堂의 시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漢陽을 懷古한 절구 세 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본에 의해 병합된 당대 조선의 한양의 풍경은 떠들썩하다고 일컬으며 ‘훈장 받고 작위 받은 수레속 인물들, 모두들 우리 군주에게 총애받던 이들이라네 (勳章侯伯車中客, 盡是吾 王寵遇臣)’²⁶⁾라고 하여 국권이 상실한 즈음에도 여전히 확보하며

25) 위의 책, 11면

26) <漢陽懷古三絶>, 張錫英, 『晦堂先生文集卷之二』.(경인문화사영인 한국역대문집

부일에 적극적인 인물들이 다름 아닌 무너진 왕조로부터 누구보다 총애를 받고 있던 이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회한에 젖고 있다. 이어지는 시편에서는 총독부와 덕수궁 앞의 풍경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국권 상실 이후 조락한 조선 왕실의 풍경을 여실히 묘파해 내고 있다.

총독부 깃발은 태양처럼 높이 빛나고,

장안 인사들 조수처럼 밀려드는데.

가련히도 덕수궁 앞길에는,

다만 추위에 떠는 까마귀만 아침저녁으로 조회하네.

(總督旌旗耀日高, 長安士女赴如潮. 可憐 德壽宮前路, 只有寒鴉朝暮朝.)²⁷⁾

起峇과 마찬가지로 벌벌을 이루어 세도를 누리던 朝臣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표변하여 부일하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만약 사치를 끝 간 데 없이 하고 나라 팔아먹은 죄를 쌓아본다면, 못은 평지가 되고 밭은 산꼭대기가 될 것 (如積窮奢賣國罪, 沼爲平陸圃爲嶮)²⁸⁾’이라는 구절이나 ‘나라 판 간악한 꾀로 또 명망도 사려하네, 임금도 없는 흉악한 배속이 어찌 백성을 근심하랴 (賣國奸謀乃買譽, 無 君凶肚豈憂民)²⁹⁾’와 같은 구절에는 閔泳駿이나 金弘集 등의 부일배를 唾罵하는 유생의 날선 목소리가 준엄하게 실려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西征諸作>에 수습된 시편들을 두고 그 정조를 살펴 보았다. 세부적인 변주를 보이기는 하지만 작품을 규율하는 핵심적인 주지는 배일 감정의 토로 그리고 국난기에 올바른 대처를 못한 정황에 대한 안타

총서 894권, 1994, 281면.)

27) 위와 같은 곳.

28) <閔泳駿江亭>, 李中業, 앞의 책 11면-12면

29) <賊臣弘集曾爲圻伯管下遼路多善政碑>, 위의 책, 12면.

까움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해당 시기 한문학 작가의 한시 작품을 검토하는 아직까지의 추세는 몇몇 순국지사의 대표적인 절명시를 들고 그에 대한 칭예로 일관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대 현실을 이만큼의 밀도로 고뇌하며 일제에 대한 반감을, 임란과 호란과 포개기도 하고 혹은 진력을 다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회한과 곱치기도 하며, 유장하게 제시하는 작품은 검토되지 않은 듯하다.

4. ‘吾道’에의 強固한 遵信

앞 장에서는 행장과 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대에 대한 起岩의 인식을 살펴 보았다. 구한말, 바스러져 가는 국운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분투하는 起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하자면 우국지사로서의 면모를 약역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국충정으로 풍찬노숙하는 起岩과는 또다른 모습도 문집 도처에서 산견된다. 그 중 대표적인 면모는 자신의 학맥을 견고히 遵信하는 유생으로서의 起岩이다. 이러한 모습을 寒洲學派와 西山學派 사이에 벌어진 論戰 속에서의 起岩의 처신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이 논전은 寒洲 李震相과 西山 金興洛을 중주로, 退溪의 학설을 尊信하는 서산학과와 退溪의 학설에서 일정 정도 ‘벗어난’ 한주학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논전이다. 필자에게 이학적 층위에서의 편차에 대해 贅言할 소양이 없으니 문집 곳곳에 산재한 한주학에 대한 起岩의 언급을 발췌하여 그 논란의 所在를 간략히 집어보고, 그 의미를 당대 사회에서의 전통소의 부하량에 유의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한주 이진상은 文章과 識見으로 명망이 높아 당대의 通儒라 할 수 있으

나, 때면 心卽理 일설이 先儒의 正論과 부합하지 않음을 안타까이 여겼다. 왕년에 최순부가 배척함이 매우 심하여 한주의 문도들과 절교하기에까지 이르러 도리어 이단이란 지목을 받기도 하였다. (내가) 듣고 좋지 않게 여겨 글을 써 증재하려 하였으나 순부는 고집을 꺾지 않고 받아 들이지 않았다. 지금 한주의 문집이 간행된 것을 보니, 순부가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 심성 설이나 이기설이 선유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약파요 심술은 음특하고 사기는 패만하여 성현과 斯道를 侮蔑하고 이지러짐에 기탄이 없다.³⁰⁾

郭鍾錫은 그(한주의) 문생들 중 한주의 학설을 가장 존신한 인물이다. 평소 진주인 중에 理氣를 검하여 논하는 이와 적이 되어 서로 공격하다가 이단으로 몰고 금계학도로 지목하였다. --- 근자에 그 사이에서 들으니 壽官疏의 끝에, 臣은 陶山人들에게 책망을 받고 있다고 운운하였다고 한다. --- 陶山人들이 주로 하는 학설은 朱退以來 우리 先生에 이르기까지 傳受된 宗旨이며 저들 무리가 주창하는 학설은 寒洲가 일으킨 異說이다. 앞서 이미 우리들의 학설을 이단으로 몰아 우리 설을 주창하는 이들을 金溪學徒로 몰더니 또한 임금에게 고하는 문자에도 이러한 문자가 포함되어 천하에 전해지게 되었으니 그 心法이 극히 다르지 않다. 肅仲 등의 논설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挽詞는 결단코 말아 두지 말고 되돌리는 것이 어떻겠는가.³¹⁾

근자에 들으니 저들은 버티고 서 후매함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데 꼭중

30) 李寒洲, 嘗聞其文章見識, 足爲當世通儒, 故每以心卽理一說之不合先儒正論, 爲之慨惜, 而往年崔純夫, 排斥太甚, 與其徒, 終至絕交, 反被異端之目, 聞甚不佳, 貽書以調停之, 純夫牢執, 不肯聽受. 今見其書之印布者, 純夫果未爲過矣. 其心性理氣說之不合先儒, 猶屬薄科, 心術陰惡, 辭氣悖慢, 侮聖亂道, 無所忌憚. <上西山先生丁酉十月十日>, 위의 책, 26면.

31) 郭鍾錫, 其門生中最尊信其說者也. 素與晉州人之兼理氣說者, 立敵相攻, 歸之以異端, 目之以金溪學徒. --- 近聞其中間, 壽官疏末端曰, 臣爲陶山人所詆罵云云. --- 陶山人所主之說, 卽朱退以來, 及我先生, 傳受宗旨, 渠輩所主之說, 寒洲倡出之異說, 前旣以吾說歸之異端, 主吾說者目之以金溪學徒, 又於告君文字, 如是說去傳之天下, 其心法極不正. 肅仲諸公之言, 果非過矣. 其挽詞斷不可留置, 速速還送如何. <答金敬立>, 위의 책, 144면.

석이 두목이라고 한다. 이는 정과 사가 바로 교전하는 대목이니 적은 근심이 아니다.³²⁾

起岩이 논박하고 있는 대로 寒洲 理學은 ‘心卽理’로 요약되고 있다. 그런데 起岩 등이 한주를 저토록 매도하는 것은, 한주의 설이 심성의 작용에 있어 理氣가 互發한다는 退溪의 학설과 달라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退溪의 ‘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 역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주자의 구상을 그대로 追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주자의 구도를 답습하는 데 그쳤다면, 퇴계학파가 등장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과문한 대로, 인성과 우주를 아울러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창출한 주자의 학설은 그 자체에 맹점도 함께 지니고 있었던 바, 퇴계는 理의 우월성과 자율성을 보다 강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보다 더 理를 강조하는 한주학을 두고 ‘주자에게서 퇴계로’ 성리학이 전개되었듯이 ‘퇴계에서 한주로’ 조선 성리학이 전개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런데 제시된 글에서 확인되는 한주나 곽종석에 대한 起岩의 매도에는 자신의 학맥을 遵信하려는 교조적인 목소리만이 착색되어 있는 듯하다. 서산학을 두고 ‘金溪學徒’라 비아냥거리고 임금에게 올리는 글에 도산인에게 당하는 詬罵를 적고 있는 한주학과 역시 사정은 동일하니 첫 번째 제시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調停하기도 하고 접점을 모색해 보기도 하다가 점차 양측의 감정이 격앙되어 갔을 것이다. 중국에는 西山 사후 곽종석이 보낸 제문을 돌려보내자는 의론이 돌기도 하고, 정과 사가 충돌하는 聖戰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있다.³³⁾ 양측의 주장을 두

32) 近聞彼輩之角立詬罵, 無所不至, 郭爲頭目云. 此正邪正交戰之會, 不是細憂也 <與金敬立>, 위의 책, 147면.

33) 제문을 돌려보내자는 대목에서는 노론과 소론을 갈라서게 한 회니시비가 떠오르고 正과 邪의 交戰이라는 대목에서는 禮訟을 둘러싼 서인과 남인 사이의 알력이 연상

고 그 適否를 논하는 일은 이 자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는 다만 이러한 논전에서, 사승 관계를 遵信하는 관계가 20세기 벽두에 이르기까지 당대 사류들에게 사활적인 쟁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³⁴⁾

그렇다면 양 학파 사이의 논쟁에서 확인되는 起岩의 날선 목소리를, 우리의 起岩 이해에 있어 여하히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인가. 더욱이나 起岩의 문집에 수습된 서신의 대목대목은 屏虎論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각인시키기 위한 분투로 채워져 있기도 하다. 18세기 이래 영남 유림을 양분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호병논쟁은, 거칠게 요약하자면 退溪의 高弟가 鶴峯 金誠一인가 아니면 西厓 柳成龍 인가를 두고 벌어진 논란이다. 西厓를 지지하는 이들은 西厓의 벼슬이 더 높았다는 사실로, 鶴峰을 지지하는 이들은 鶴峰의 年齒가 높았다는 사실로 각각 退溪의 高弟였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려 한다. 起岩은 물론 학맥을 좇아 虎論의 입장에서 屏儒를 논박하고 있다.

국권 회복을 위한 의지를 견결하고 비장하게 피력하고 있었으며 또한 다른 누구보다도 그 실천에 있어 전범이 될 이력을 보인 인물이 살핀 바와 같이 바로 起岩이었다. 그렇다면 동일 인물의 또다른 얼굴인 병호시비의 한 축이었던 起岩이나 한주학을 매도하기 위해 필설을 휘두르는 起岩에 대해서는 어떤 자리매김을 하여야 할 것인가. 당대의 時務와 동떨어진 ‘한가한’ 일에 몰두한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확인하고 말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쟁의 말폐적인 현상이 당국의 상황에서도 시정되지 않았다고 개탄해마지 않을 것인가. 쉽사리 판단될 문제는 물론 아니겠으나 필자로서

되기도 한다.

34) 다른 한편 동시에 유념되어야 할 사항은 이들이 학통과 학설로 날선 대립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난에 대해서는 합심하여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파리장서운동을 함께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는 근세기 지성인들을 통해 확인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보다 균형잡힌 시각은, 앞 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마무리

본문에서 살핀 바, 당대의 시무에 대해 실천적인 대응을 한 起岩의 모습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겠다. 구국을 위한 인식과 실천의 심급에 따라 우리 지성사나 문학사에서 여하한 정도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만 고려하면 되겠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통에 대한 준신으로 상대방에 대해 준열한 논박을 펼치는 起岩의 모습이 앞서 살핀 起岩 과 겹치며, 필자는 곤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손쉽게는 동일한 인물인 起岩을 두고 어느 국면에 대해서는 고평하고 어느 국면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것도 상정 가능한 이해의 한 방식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이해는 해당 인물에 대한 온당한 자리매김이라 할 수 있을까. 더욱이나 이러한 현상은 起岩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당대 지성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당장 起岩의 묘지명을 쓴 晦堂 張錫英만 하더라도 <亡國의 소식을 듣고 심회를 적다(聞亡國報述懷)>³⁵⁾라는 작품을 통해 나라 잃은 심경을 통절하게 노래하고, 나아가 나라 잃은 亡國民으로 間道를 유랑하는 동포의 신산스러움을 함께 아파하는 작품을³⁶⁾ 남기며 국권 회복에 일생을 투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도산서원을 배알하며 退溪에 대한 尊信을 작품 속에 담아내기도 하며³⁷⁾ 조선후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湖洛論

35) 『晦堂先生文集卷之一』, 경인문화사영인, 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1994, 271면

36) <見間島流民有感>, 위의 책 卷之二(한국역대문집총서 894권, 1994, 284면-285면.)

37) <謁陶山書院四絶>, 위의 책 위의 권(312면-313면.)

쟁을 두고 가장 핵심적인 측면을 여섯 조목으로 항목화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출해내고 있기도 한 것이다.³⁸⁾ 전통적인 자장으로의 침잠과 당대 시무에 대한 응전이 동일 인물에게 경중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그 부하량이 나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起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당대에 대한 전통적인 지성인의 몫을 온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개인이나 연구자를 둘러싼 ‘편견’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起岩이나 있는 그대로의 당대를 적확하게 읽어내릴 독법이 요청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실 본고는 起岩 李中業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근세기에 대한 보다 균형잡힌 시각을 요청하기 위한 試論이기도 하다. 희망컨대 이러한 논의가 축적된다면 가까이는 당대 문학사의 왜소성이 극복되는 한편 궁극에는 ‘근대’에 대한 입론에도 보다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金興洛, 『西山全集』, 서산전집간행회, 1982.
李晚燾, 『響山先生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429-432, 경인문화사, 1992.
李中業, 『起巖遺稿』, 여강출판사, 1986.
張錫英, 『晦堂先生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894-900, 경인문화사, 1994.
김상기,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1997. 340면
김희근, 『안동의 독립운동사』, 안동시, 1999. 451면.
남부희, 『유림의 독립운동사 연구』, 범조사, 1994. 356면.
남부희, 『제2차 유림단사건』, 불휘, 1992. 272면.
안동문화연구소, 『터를 안고 仁을 퍼다』, 예문서원, 2005. 358면.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한말 영남 유학계의 동향』, 영남대 출판부, 1998. 662면.

38) <湖洛說辨>, 위의 책 卷之二十二(한국역대문집총서 897권, 1994, 395면-402면)

ABSTRACT

On the Study of Gi Am Lee Jung Up(起岩 李中業)

Lee, Taek-Dong

Gi Am Lee Jung Up(起岩 李中業) is a independence fighter in the 19th and 20th century of Chosun Dynasty. He was struggled with an Japanese imperialism. His father also was struggled with an Japanese imperialism. Therefore Gi Am Lee Jung Up(起岩 李中業)'s literature collection fills with a hostile feeling and wrath for Japanese imperialism. The other side, he regarded his cognition and thinking in the same light as traditional cognition and thinking.

I think that the trend of study of the that period has been concentrated in people who struggled with an Japanese imperialism. But the fact that a traditional intellectual Gi Am with the traditional knowledges had showed the criticism of the despotism of his society by Japanese imperialism says to us that the territory of study have to be widened. In the end, based on the study of Lee Jung Up, general characteristics of literary phenomenon by traditional highbrow in the 19th and 20th century also could be examined.

Key Words Lee Jung Up, Jang Suk Young, traditional intelligence, antifeudalism, 20th

논문투고일 : 2006. 11. 10
심사완료일 : 2006. 11. 22
게재확정일 : 2006. 12. 1